

## 낭만을 위하여

### 주제 및 기획 의도

사람들은 누구나 낭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현실은 낭만을 가질 틈도 없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마치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기계처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너는 낭만이 있니?”라는 대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영화가 끝났을 때 낭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등장인물

최찬희 - 18세 남자 고등학생. 조용하고 사교성이 없는 성격이다. 성적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 항상 교실에서 보면 멍을 때리거나 그림을 끄적이고 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무슨 항상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각선에 앉아 있는 여자애는 자기랑 다르게 공부에만 미쳐 있는 것 같다. 그 울타리 안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에 말을 걸게 된다.

유지하 - 18세 여자 고등학생.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이다. 어릴 때부터 엄격했던 집안 탓에 성공에만 매달리다 보니 대학 입시가 코앞인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항상 교실에 혼자 앉아 문제집만 풀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자꾸 말을 거는 남자애가 있다. 거슬리고 짜증도 나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안 거는데 불쑥 말을 거니까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 시놉시스

쉬는 시간에도 이어폰을 끼고 공부를 하고 있는 유지하. 집중하고 있는 유지하의 모습과 대비되게 교실 안은 시끌벅적 산만하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떠들고 있는 학생들 사이 혼자 앉아 있는 유지하, 그리고 최찬희. 최찬희는 헤드셋을 끼고 창밖을 보면서 멍을 때리고 있다. 대각선에 앉았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만도 한데 각자의 세상에 빠져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석식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고 학생들이 교실을 우르르 빠져나간다. 느지막하게 짐을 챙겨 일어난 최찬희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붙들고 있는 유지하. 최찬희는 앉아 있는 유지하의 옆을 지나쳐 가는 듯 하더니 다시 돌아와 말을 건다. 같이 집에 가지 않겠냐고 묻는 말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이 쳐다보는 유지하. 최찬희는 그 반응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겨 교실을 빠져나간다.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도 유지하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말을 거는 최찬희. 일주일 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유지하는 결국 최찬희에게 그만 좀 하라고 짜증을 낸다. 그럼 또 별 대꾸 없이 가버리는 최찬희. 최찬희가 나간 문을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던 유지하는 공부하던 것을 대충 챙겨서 가방을 들고 따라 나간다. 앞서 걷던 최찬희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조금 앞에서 속도를 낮추고 걸어가는 유지하. 학교를 벗어난 둘은 나란히 걷지만 별 대화를 하지는 않는다. 대화 없이 걷던 둘 사이의 정적을 깬 건 최찬희였다. “너는 낭만이 있니?”